



불교가 살아야 세계도 국가도 개인도 산다

섭수의 서원, 끝없는 정진

불자들의 본분사인 개인적인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그 공덕을 사회적 실천을 통해 보다 많은 이웃에게 회향하는 '깨달음의 사회화'. 이는 불교적 가치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상 및 실천 체계인 '참여불교'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불교는 불교적 시민사회운동 중, 불교NGO 활동과 복지사업, 자원봉사 활동 등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비희사 한마음으로 불국토 이루리라”

참여운동은 불자의 사명

참여불교를 가능케 하는 불교 고유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경전에서는 남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러주고 불법으로 인도하는 보살의 자선에 대해서 사십법(四攝法)이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보살은 이 사십법을 실천함으로써 중생교화와 수행을 병행하며 불국토를 건설하게 되는 것이다. 자비희사(慈悲喜捨)의 네 가지 큰마음이 보살이 남을 대할 때 가져야 할 정신자세라면, 사십법은 네 가지 행동방법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십법은 현실속에서 어떻게 구체화 될 수 있을까.

첫째 보시(佈施)이란 저마다 중생이 바라는 바를 베풀어서 불법으로 이끌어 들이는 것을 말한다. 주변을 눈여겨보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음에도 보시행을 펼치는 불자들이 많다. 사찰의 법회 진행을 돕는 것도 보시요.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보시이며, 법률상담, 의료서비스 등 자신의 전문직을 살려 봉사하는 것도 보시다. 그 베풀어는 재시(財施), 법시(法施), 무위시(無畏施) 등이 있다. 무위시란 항상 온화

시민운동·복지활동·자원봉사

행복사는 생활속 수행으로 승화

한 미소와 인자한 모습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지 않고 편안함을 느끼도록 한다.

둘째 애어섭(愛語)이란 부드럽고 따뜻한 언어사용을 말한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다정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 사람에게 더없이 큰 용기가 된다. 불자들은 언제나 상냥하고 인정이 넘치는 말로써 사람을 대하고 신뢰를 쌓아 자연스럽게 불법의 바다로 그를 인도해야 한다.

셋째 이행(利行)이란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삼업(三業)이 모두 이웃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행동과 말과 뜻이 모두 진심으로 사람들을 이롭게 할 때 참된 자비희사는 저절로 이뤄진다.

넷째 동사(同事)이란 중생과 함께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의 '동사(同事)'는 '참여불교'의 의미와 대동소이하다. 굶주리는 북한 동포나 전쟁 난민들을 위한 '한끼 굶기운동'도 동사법의 한 예다. 동사법을 행함으로써 상대의 고난을 이해하게 되고 동체대비도 실현된다.

이 네 가지 행동방법은 자기완성과 함께 세계의 정토화를 의미하기에, 불교시민운동과 복지사업, 자원봉사 등을 아우르는 신앙의 최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정토사 주지 덕진스님은 '보살이 중생을 위로하며 불법으로 인도하는 사십법은 불자들이 실천을 통해 선업을 쌓고 개인과 사회의 해탈과 행복을 이루는 생활속의 수행'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불교 NGO 활동은 통일과 민주화가 주요 쟁점이던 시대를 지나 사회 각층에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면서 영역이 다분화됐다. 또 최근 환경 문제가 불교계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보다 전문화되고 구체적인 모습을 띄게 됐다.

▲종교간의 대화=최근 이라크 전쟁과 관련 조계사 청년회는 오는 10월까지 매달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10대 종교 성직자들을 초청, 이웃 종교를 배우는 법회를 열고 있다. 종교환경회의(공동대표 수경) 역시 환경을 주제로 종교간의 협력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여성=조계종 문화부장에 비구니 탁연스님 임명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종단 내 비구니 부설지도 추진중이다. 불교여성개발원은 호주제 폐지를 위해 연대 활동을 벌였고, 국제여성불자들의 모임인 사카야디타(Sakyadhita) 2004년 대회가 한국에서 열려 불교여성운동이 활기를 띠 전망이다.

▲인권=미국 장갑차에 희생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계기로 불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범불교대책위는 광화문 단식기도 등을 통해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이라크 전쟁과 관련, 범불교대책위원회를 꾸려 '검기서위'를 펼쳤으며, 이라크 난민 지원을 위해 불자 파견을 결정하기도 했다.

▲교단자정·개혁=참여불교제가연대는 '교단자정운동'의 일환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의 전 과정을 감시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종교개혁 단체들은 '개혁을 위한 종교 NGO네트워크'를 구성, 교단개혁에 나섰다.

▲공동체 운동=인드라마생명공동체는 남원 실상사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사업을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다. 인드라마는 (사)한생명(사)를 설립해 현지에 귀농전문학교, 여성농업인센터, 지역발전센터를 열었으며, 도농공동체 운동의 일환으로 '불교생명공동체'를 결성했다.

▲국제사업=정토회 산하 JTS와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이웃을 돕는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과 불교 국가인 네팔, 이라크 등에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또 진각복지회, 우리

는선우, 한국불교기아도움기아도 재정적 지원을 통해 티베트, 인도 등 불교 관련 국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국제사업=정토회 산하 JTS와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이웃을 돕는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과 불교 국가인 네팔, 이라크 등에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또 진각복지회, 우리

는선우, 한국불교기아도움기아도 재정적 지원을 통해 티베트, 인도 등 불교 관련 국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국제사업=정토회 산하 JTS와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이웃을 돕는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과 불교 국가인 네팔, 이라크 등에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또 진각복지회, 우리

는선우, 한국불교기아도움기아도 재정적 지원을 통해 티베트, 인도 등 불교 관련 국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국제사업=정토회 산하 JTS와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이웃을 돕는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과 불교 국가인 네팔, 이라크 등에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또 진각복지회, 우리

는선우, 한국불교기아도움기아도 재정적 지원을 통해 티베트, 인도 등 불교 관련 국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국제사업=정토회 산하 JTS와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이웃을 돕는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과 불교 국가인 네팔, 이라크 등에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또 진각복지회, 우리

는선우, 한국불교기아도움기아도 재정적 지원을 통해 티베트, 인도 등 불교 관련 국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국제사업=정토회 산하 JTS와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이웃을 돕는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과 불교 국가인 네팔, 이라크 등에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또 진각복지회, 우리

는선우, 한국불교기아도움기아도 재정적 지원을 통해 티베트, 인도 등 불교 관련 국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국제사업=정토회 산하 JTS와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이웃을 돕는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과 불교 국가인 네팔, 이라크 등에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또 진각복지회, 우리

는선우, 한국불교기아도움기아도 재정적 지원을 통해 티베트, 인도 등 불교 관련 국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국제사업=정토회 산하 JTS와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이웃을 돕는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과 불교 국가인 네팔, 이라크 등에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또 진각복지회, 우리

는선우, 한국불교기아도움기아도 재정적 지원을 통해 티베트, 인도 등 불교 관련 국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국제사업=정토회 산하 JTS와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이웃을 돕는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과 불교 국가인 네팔, 이라크 등에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또 진각복지회, 우리

는선우, 한국불교기아도움기아도 재정적 지원을 통해 티베트, 인도 등 불교 관련 국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국제사업=정토회 산하 JTS와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이웃을 돕는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과 불교 국가인 네팔, 이라크 등에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또 진각복지회, 우리

는선우, 한국불교기아도움기아도 재정적 지원을 통해 티베트, 인도 등 불교 관련 국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국제사업=정토회 산하 JTS와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이웃을 돕는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과 불교 국가인 네팔, 이라크 등에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또 진각복지회, 우리

는선우, 한국불교기아도움기아도 재정적 지원을 통해 티베트, 인도 등 불교 관련 국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참여불교 이끄는 우바새·우바이들



◇박광서



◇이인자



◇윤천수



◇남지심



◇김재일



◇김묘주



◇김동훈



◇노귀남

10여 년전부터 몇몇 스님과 재가자들이 시민환경운동에 동참하면서 '시내고(善)'와 '사회고' 해결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불교NGO 활동을 이끈 주역들 가운데는 시민운동을 하던 재가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스님들이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민주화 운동 당시 성직자로서의 신분이 방해막이 될 수 있었고, 불교 신행의 특성상 스님들이 재가자를 이끌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난,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스님들의 도움 없이 불교NGO를 이끌고 있는 재가자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98년 종단 분규를 겪으며 태동한 참여불교제가연대를 주축으로 재가자들의 자율적인 시민운동과 교단 자정 움직임은 출가 대중의 개혁과 나란히 한 축을 이루며 불교시민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몇년간 참여불교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재가단체는 연합단체로 출범한 참여불교제가연대다. 공동대표인 박광서 서강대 교수와 부설기관인 불교아카데미 윤천수 이사장, 김태제(경기불교문화원장) NGO지원부과장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박광서 대표는 인도 및 티베트 불교 지원과 함께 오는 7월 20일 개막되는 참여불교세계연대한국조직위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아 국제연대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불교아카데미 윤천수 이사장은 불교NGO 전문가 양성 및 불교사회화 연구지원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이에 앞서 12년전 본격적인 불교NGO 시대를 연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대의 김동훈 운영위원장은 최근 반전평화불교대책위원회와 이라크난민돕기범불교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평화운동을 벌이던

불교시민운동의 새 흐름 주도

난민구호·인권운동등 활동 활발

서, 이라크 현지 긴급구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자비와 정성과 함께 매장을 비롯 2곳의 외국인노동자 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이웃을 돕는사람들을 통해 네팔에 '아침을 여는 작은 마을'을 설립해 청소년들에게 컴퓨터, 한국어 및 영어,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94년 발족한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의 김재일 회장은 95년 UN 기구인 UNHCR(UN 국제난민대책기구)의 협약을 맺고 르완다 난민돕기에 나섰다. 99년에는 지진피해를 입은 터키에 1천만원의 구호금을 전달했으며 네팔 룸비니에 2개의 초등학교를, 포카라에 중학교를 건립하는 등 빈곤층에 대한 무료교육사업을 벌이고 있다.

여성 불자들의 활동도 점차 활력을 얻고 있다. 95년부터 98년까지 캄보디아 및 미얀마 고아와 스님들을 지원해 온 우리는선우 남지심(소설가) 공동대표는 최근 몸글불교 및 티베트 난민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불교NGO 활동가들과 관련 학자들의 토론모임인 불교포럼의 노귀남 집행위원장은 불교발전위, 사회정의위, 평화통일위 등의 활동분과를 두고 다양한 주제의 포럼을 열어 참여불교 운동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 김묘주 회장은 신하 행복가족상담소와 이혼예방센터를 두고 이혼 예방과 올바른 가정성립을 위한 세미나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 이인자 원장은 여성 지도자 배출을 위한 리더십 개발 교육과 수행공동체로서의 가정만들기, 비구니 권익옹호 등 불교계 남녀평등 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진각복지회는 스리랑카에 직업훈련센터를 세워 현지인 직업교육에 나서는 등 국제사업으로 보시행을 실천하고 있다.

불

불기254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불교도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두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

회 장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김 법 장

부 회 장

대한불교 진각종 총무원장 최 효 암

- 상임이사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전 남 정
- 상임이사 대한불교 보문종 총무원장 조 법 중
- 상임이사 대한불교 원웅종 총무원장 최 법 률
- 상임이사 불 교 총지종 총무원장 이 법 공
- 상임이사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송 무 진
- 이 사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김 혜 룬
- 이 사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장 박 심 월
- 이 사 보국불교 염불종 총무원장 이 정 봉
- 이 사 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최 학 산
- 이 사 대한불교 진언종 총무원장 이 유 삼

부 회 장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이 운 산

부 회 장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방 지 하

- 이 사 대한불교 용 화 종 총무원장직대 임 법 영
- 이 사 대한불교 법 문 종 총무원장 이 덕 산
- 이 사 대한불교 본 원 종 총무원장 이 대 화
- 이 사 대한불교 일봉선교종 총무원장 정 동 봉
- 이 사 대한불교 대 승 종 총무원장 윤 일 오
- 이 사 대한불교 삼 론 종 총무원장 김 혜 승
- 이 사 대한불교 열 반 종 총무원장 김 해 곡
- 이 사 대한불교 미 타 종 총무원장 이 월 정
- 이 사 한국불교 여 래 종 총무원장 신 명 안

부 회 장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장 전 운 덕

사 무 총 장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이 흥 과

- 이 사 대한불교 대각종 총무원장 이 만 청
- 상임이사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부장 김 성 관
- 상임이사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부장 김 미 산
- 상임이사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부장 김 월 해
- 상임이사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부장 박 덕 수
- 상임이사 대한불교 진각종 총무부장 손 혜 인
- 감 사 대한불교 법화종 사회부장 남 암 현
- 감 사 보국불교 염불종 사회부장 양 법 률
- 감 사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부장 송 덕 성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B/D 2층 (홈페이지 www.mahayana.or.kr) 대표전화 : (02)732-4885 / FAX : 737-7872

